

담배에 관하여

나는 담배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배에 관한 규칙을 만들고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그러한 규칙이 확실하게 만들어 두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담배가 사람의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에 의해 병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또 죽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담배는 건강을 해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담배 때문에 죽은 사람의 가족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걸어 승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담배회사까지 인정할 정도로 담배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담배는 직접 피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은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 단지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간접흡연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은 담배를 직접 피지 않고도 담배에 의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의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담배의 연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란 것은 그다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조금 주의하고 신경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배려해야 합니다. 담배에 관해서도 조금만 배려해서 거기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지킨다면 이유없이 피해를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나 레스토랑, 버스나 전차등 공공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